

직설 조건문과 전건 긍정법

김세화 (서울대 강사)

【요약문】 이 논문은 일상적인 직설 조건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반 맥기가 전건 긍정법에 대한 반례라고 주장하는 예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방식을 제시하고 이것들이 전건 긍정법의 반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인다. 직설 조건문에 대한 새로운 이해란 그것이 전건인 경우 후건의 조건적 확률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는 문장이며 따라서 이 조건적 확률이 높은 경우 참이 되는 문장으로 봄으로써 직설 조건문이 그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반 맥기가 염두에 두고 있던 직설 조건문의 세 가지 특징이 역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새로운 이해방식이 타당함을 보인다.

【주요어】 직설 조건문, 전건 긍정법, 조건적 확률, 반 맥기

1.

“A counterexample to Modus Ponens”에서 반 맥기는 전건 긍정법에 대한 반례라고 그가 주장하는 몇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직설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함으로써 반 맥기의 예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보이고, 그것들이 전건 긍정법의 반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겠다.¹⁾

2.

1) Vann McGee, “A Counterexample to Modus Ponens”, *Journal of Philosophy*, 82, 1985, pp.462-471.

반 맥기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다. 모든 예들이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 예만 들기로 하겠다. 그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행해진 의견 조사에서 공화당의 로날드 레이건이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훨씬 앞서 있고, 다른 공화당 후보인 존 앤더슨이 3위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다음의 추론의 모든 전제를 믿을 만한 좋은 근거는 있지만 그 결론을 믿을 만한 좋은 근거는 없다:

만약 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면, 만약 이기는 이가 레이건이 아니라면 앤더슨일 것이다.

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이기는 이가 레이건이 아니라면, 앤더슨일 것이다.

반 맥기는 이것이 전건 긍정법의 반례이며, 따라서 전건 긍정법은 직설 조건문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반 맥기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직설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건 긍정법은 실질 조건문에 있어서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예가 정말로 전건 긍정법의 반례라면 여기에 나오는 직설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일 수가 없는 것이다.

반 맥기는 실질 조건문의 연결사 “ \rightarrow ”와 구별하기 위해 직설 조건문의 연결사 “ \Rightarrow ”를 도입하고 직설 조건문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 특징은, 방금 보았듯이, 그 후건(consequent)이 역시 직설 조건문일 때 전건 긍정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직설 조건문이 ‘ $P \Rightarrow Q$ ’의 단순한 형식일 때는 전건 긍정법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두 번째 특징은 직설 조건문이 그 강도에 있어 엄밀 함축문(strict implication)과 실질 조건문 사이라는 것이다.²⁾ 그는 주장하기를 Q가 P의 논리적 귀결이면, ‘P

$\Rightarrow Q$ 가 항상 참이고, $P \Rightarrow Q$ 가 참이면 실질 조건문 $P \rightarrow Q$ 가 항상 참이라고 한다. 세 번째 특징은 수출원리(law of exportation)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즉, $P \Rightarrow (Q \Rightarrow R)$ 이 $(P \& Q) \Rightarrow R$ 의 논리적 귀결이라는 것이다. 그는 수입원리(law of importation)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혹자는 반 맥기가 위 예에서 결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평한다. 위의 예에서 그 추론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 반 맥기는 우리가 모든 전제를 믿을 만한 좋은 근거가 있어도 결론을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전건 긍정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지 못한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³⁾

앞으로 전개될 글에서 필자는 이 예에 나오는 각각의 문장, 특히 직설 조건문에 대한 이해방식을 제안하겠다. 이 이해방식에 따르면 위의 예는 제대로 된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이 이해방식으로 반 맥기가 지적하고 있는 직설 조건문의 세 특징이 설명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필자의 이해방식이 위의 예에 대한 합당한(legitimate) 해석방식이라는 것이 보일 것이다.⁴⁾ 그러나 필자는 그의 예들이 결국 전건 긍정법의 반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일 것이다.

4.

필자의 제안은 어떤 (그러나 모두는 아닌) 문장 「만약 P이면, Q이다」를 P인 경우 Q의 조건적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이, 즉 $Pr(Q/P)$ 이

2) 여기서 반 맥기는 “엄밀 함축문”을 보통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Walter Sinnott-Armstrong, James Moor, Robert Fogelin, “A Defense of Modus Ponens”, *Journal of Philosophy*, 83, 1986, pp.296-300를 볼 것.

4) 그러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를 볼 것.

높다는 주장으로 해석하지는 것이다. 어떤 일상적으로 쓰이는 직설 조건문,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조건문으로 보이는 어떤 문장들을 조건문이 아닌 다른 문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우리가 「만약 P이면, Q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실질 조건문으로 해석되어야만 하지만 조건적 확률이 높다는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는 “만약 네가 윈빈이라면, 나는 송혜교이다”이다. 우리는 모든 이가 전건이 거짓임을 알고 있을 때에도 (특히 그럴 때?) 위와 같이 말한다. 이 직설 조건문은 전건이 거짓인 경우 참이 되는 실질 조건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상적인 직설 조건문을 그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 조건문으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의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많은 이들이 투표하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Pr(\text{민주당이 이긴다}/\text{많은 이들이 투표한다})$ 가 높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며, 「 $\Pr(Q/P)$ 이 높다」는 문장은 조건문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필자는 어떤 (그러나 모두는 아닌) 문장 P를 P의 확률(probability)이 높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추측이나 예측을 하면서 말하는 P는 $\Pr(P)$ 이 높다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자의 제안에 따라 위의 예를 살펴보자. 먼저 위의 예에서 각각의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Pr(\text{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 = 0.8$$

$$\Pr(\text{민주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 = 0.2$$

$$\Pr(\text{레이건이 선거에 이긴다}) = 0.7$$

$$\Pr(\text{앤더슨이 선거에 이긴다}) = 0.1$$

$$\Pr(\text{카터가 선거에 이긴다}) = 0.2$$

이 경우 위의 예에서 첫 번째 전제인,

만약 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면, 만약 이기는 이가 레이건이 아니

라면 앤더슨일 것이다

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Pr(앤더슨이 선거에 이긴다/레이건이 선거에 이기지 않는다/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가 높다.

통상적인 조건적 확률 이론에 의하면, Pr(R/Q/P)은 값이 없다 (undefined). 그러나 직관적으로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우선, 공화당 후보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제외한 후, 공화당 후보가 이기는 상황만을 포함한 좁은 그림에서, 레이건이 이기지 않는 경우 앤더슨이 이길 조건적 확률을 보는 것이다.⁵⁾ 결론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것은 레이건이 이기지 않는 경우 앤더슨이 이길 조건적 확률이 높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두 번째 전제 역시 확률이 높다는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이 해석에 따라 위의 예를 재구성해보자.

Pr(앤더슨이 선거에 이긴다/레이건이 선거에 이기지 않는다/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가 높다.

Pr(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가 높다.

그러므로, Pr(앤더슨이 선거에 이긴다/레이건이 선거에 이기지 않는다)가 높다.

Pr(앤더슨이 선거에 이긴다/레이건이 선거에 이기지 않는다/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는 1.0이고 따라서 첫 번째 전제는 참이며 Pr(공화당 후보가 선거에 이긴다)는 0.8이고 따라서 두 번째 전제도 참이다. 그러나 Pr(앤더슨이 선거에 이긴다/레이건이 선거에 이기지 않는다)는 0.33에 불

5) 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Pr(R/Q/P)은 결국 버려지고 Pr(R/P&Q)로 대체될 것이다.

과하며 따라서 결론은 거짓이다. 이로써 위의 예가 제대로 된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보여진다. 반 맥기의 다른 두 예들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5.

일상적인 직설 조건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반 맥기가 지적한 그것의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단순한 형식일 때는 전건 긍정법이 타당하지만 후건이 또다른 직설 조건문이면 전건 긍정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종류의 직설 조건문을⁶⁾ 「만약 P이면, Q이다」로 나타내기로 하자. 그렇다면 직설 조건문의 첫 번째 특징은 전건 긍정법이 「만약 P이면, Q이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만약 P이면, (만약 Q이면, R이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의 직설 조건문에 대한 해석은 그것이 그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 조건문인 문장에 적용되는 전건 긍정법이 이 직설 조건문에 대해 타당한가 아닌가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첫 번째 특징은 「만약 P이면, (만약 Q이면, R이다)」와 P가 참이어도 「만약 Q이면, R이다」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며, 「만약 P이면, Q이다」와 P가 참이면 Q도 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의 예에서 「만약 P이면, (만약 Q이면, R이다)」와 P가 참이어도 「만약 Q이면, R이다」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다른 말로 하면, $\Pr(R/Q/P)$ 와 $\Pr(P)$ 가 높다고 하더라도 $\Pr(R/Q)$ 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만약 P이면, Q이다」와 P가 참이면 Q도 참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r(Q/P)$ 와 $\Pr(P)$ 가 높으면 $\Pr(Q)$ 도 역시 높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의 해석은 직설 조건문이 반 맥기가 말한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전건 긍정법’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어서는 안되지만—보여준다.

6) 모든 직설 조건문은 아님.

두 번째 특징은 Q가 P의 논리적 귀결이면 「만약 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이며 즉, Q가 P의 논리적 귀결이면 $\Pr(Q/P)$ 이 항상 높으며—「만약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실질 조건문 「 $P \rightarrow Q$ 」이 항상 참이라는—즉, $\Pr(Q/P)$ 이 높으면 「 $P \rightarrow Q$ 」가 항상 참이라는 것이었다. 이 중 나중 것을 먼저 살펴보자. $\Pr(Q/P)$ 이 높으면 「 $P \rightarrow Q$ 」가 항상 참인가 (항상 P가 거짓이거나 Q가 참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Pr(Q/P)$, $\Pr(P)$, 그리고 $\Pr(Q)$ 이 모두 높다고 하더라도, P는 참이고 Q는 거짓일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비록 참일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P이면, Q이다」가 참일 경우, 실질 조건문 「 $P \rightarrow Q$ 」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제시한 해석은 왜 반 맥기가 이것을 직설 조건문의 한 특징으로 생각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Pr(Q/P)$ 가 높지만 $\Pr(P)$ 가 낮으면 그것은 P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very likely) 것을 뜻하며 P의 낮은 확률을 P가 거짓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여길 수가 있는 것이다. $\Pr(Q/P)$ 가 높을 때 $\Pr(P)$ 도 높으면 $\Pr(Q)$ 도 높아야 하며 이것은 Q가 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Q의 높은 확률을 Q가 참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잘못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만약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항상 P가 거짓이거나 Q가 참이라고, 즉 실질 조건문 「 $P \rightarrow Q$ 」가 참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 특징 중 먼저 언급된 것을 살펴보자. Q가 P의 논리적 귀결이면 「만약 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인가? 언뜻 보기에 그런 것도 같다. Q가 P의 논리적 귀결이면 $\Pr(Q/P)$ 가 1.0이고 따라서 $\Pr(Q/P)$ 가 높다는 주장인 「만약 P이면, Q이다」도 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Pr(P)$ 가 0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Pr(Q/P)$ 는 값이 없으며 따라서 $\Pr(Q/P)$ 가 높다는 주장인 「만약 P이면, Q이다」는 거짓이다. 그러므로 Q가 P의 논리적 귀결인 경우 「만약 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Pr(P)$ 가 0이어서 $\Pr(Q/P)$ 의 값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성립한다. 즉, Q가 P의 논리적 귀결이고 P의 확률이 0이 아니면 「만약 P이면, Q이다」는 항상 참

이며, 바로 이것이 반 맥기로 하여금 이러한 것이 직설 조건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성립한다고 잘못 생각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필자의 해석은 「만약 P이면, Q이다」가 반 맥기가 주장한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⁷⁾

직설 조건문의 세 번째 특징은 이출원리가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필자의 해석은 이것이 맞다는 것을 보여준다.⁸⁾ $\Pr(R/Q/P)$ 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설명할 때 필자는 우선 P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P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포함하는 좁은 그림에서 Q인 경우 R의 조건적 확률을 보라고 하였다. 이것은 $\Pr(R/P\&Q)$ 을 계산할 때와 같은 값을 준다. 그러므로 $\Pr(R/P\&Q)$ 이 높으면 $\Pr(R/Q/P)$ 도 역시 높으며, 따라서 「만약 P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만약 P이면, (만약 Q이면, R이다)」 역시 참이어야 한다. 반 맥기는 이입원리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필자의 해석에 의하면 이입원리도 타당하다. $\Pr(R/Q/P)$ 와 $\Pr(R/P\&Q)$ 은 같기 때문에 「만약 P이면, (만약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만약 P 그리고 Q이면, R이다」도 참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출원리, 이입원리 모두 타당하다.⁹⁾

이제 우리는 $\Pr(R/P\&Q)$ 과 $\Pr(R/Q/P)$ 가 항상 같으며 따라서 「만약 P 그리고 Q이면, R이다」와 「만약 P이면, (만약 Q이면, R이다)」가 항상 같은 진리값을 갖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이제 이 생경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Pr(R/Q/P)$ 를 버리고 $\Pr(R/P\&Q)$ 로 대체할 수 있겠다. 이것은

-
- 7) "On a Supposed Counterexample to Modus Ponens"에서 카츠는 반 맥기를 따라 전건이 후건을 논리적으로 함축하는 경우 직설 조건문이 논리적으로 참이라고 말한다. 그는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D. Katz, "On a Supposed Counterexample to Modus Ponens", *Journal of Philosophy*, 96(8), 1999, p.409를 볼 것.
- 8) 만약 이출원리, 이입원리가 그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 조건문인 문장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특징도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언급 없이 설명되어야 한다.
- 9) 카츠는 이입원리가 직설 조건문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필자가 직설 조건문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굳이 $\Pr(R/P\&Q)$ 외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직설 조건문 「만약 P_1 이면, (만약 P_2 이면, ... P_n 이다)」는 $\Pr(P_n/P_1\&\dots\&P_{n-1})$ 이 높다는 주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직설 조건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반 맥기의 예들이 제대로 된 의미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직설 조건문이 반 맥기가 지적한 첫 번째, 세 번째 특징을 가지지만, 두 번째 특징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왜 반 맥기가 두 번째 특징을 주장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필자의 해석은 반 맥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직설 조건문에 대해서 합당한 해석인 것이다.

6.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떤 직설 조건문은 그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 조건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즉, 일상적으로 쓰이는 어떤 직설 조건문은 일상 언어에서는 조건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는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필자가 「 $P \Rightarrow Q$ 」 대신 「만약 P 이면, Q 이다」를 도입한 이유이다.¹⁰⁾

그렇다면, 필자의 제안에 따라 해석되었을 때, 반 맥기의 예들은 모든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지만 전건 긍정법에 대한 반례는 아니다. 왜

10) 몇몇 철학자들은 직설 조건문을 위해 실질 조건문의 연결사 “ \rightarrow ”와 구분되는 “ \Rightarrow ”을 도입하고 직설 조건문에 대해 $\Pr(P \Rightarrow Q) = \Pr(Q/P)$ 가 같도록 진리 조건을 부여하려 하였다. 반 맥기도 이러한 조건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건 긍정법이 이 조건문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불행히도 데이비드 루이스는 그러한 조건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였다. David Lewis, “Probabilities of Conditionals and Conditional Probabilities”, *Philosophical Review*, 85, 1976, pp.297-315, reprinted in *Conditionals*, ed. by Frank Jackson,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pp.76-101을 볼 것.

나하면 그 예들의 첫 번째 전제들이 그 논리적 형식에 있어서 조건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조건적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7.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at face value) 해석되면 안된다. 우리가 P라고 말할 때 우리는 때로는 P가 참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P의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만약 P이면, Q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때로는 실질 조건문 「 $P \rightarrow Q$ 」를 말하지만 때로는 P인 경우 Q의 조건적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두 개의 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베키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국 친구 중의 하나인 베키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소설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우리는 단지 생략적으로(elliptically) 말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말한 것은 톰 소오여의 모험 이야기에 의하면 베키가 동굴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 방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한 것은 말 그대로 그 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그는 그 방안에 서 있으면서 그 말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가 말한 것은 그 방에는 자기 이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한정된 양화사(restricted quantifier)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P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면서 P를 발화한 사람들이 거짓을 말했다고는 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는 호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매우 용감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 그가 거짓을 말한 것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설 조건문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보다 관련된 예는 “이거나”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비배타적 선언 혹은 배타적 선언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P이거나 Q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때로는 「 $P \vee Q$ 」으로

번역될 수 있고, 때로는 'P \vee Q'로 번역될 수 있다. 동일한 표현으로 다른 진리 조건을 지닌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8.

말하는 것을 언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보다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일상적인 직설 조건문이 언제 그 논리적 형식에서 조건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아니면 조건적 확률이 높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과제일 것이다.

이 논문을 마치면서, 필자의 직설 조건문의 해석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반론을 살펴보겠다. 혹자는 필자가 문장의 진리 조건과 단언 조건(assertability condition)을 혼동하고 있다고 반론을 펼지도 모르겠다. 이 반론은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모든 직설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인 문장이 모두 단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직설 조건문은 전건인 경우 후건의 조건적 확률이 높을 경우에만 단언될 수 있는 정도가 높다(highly assertable).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반 맥기의 예에서 그 전제들을 받아들일 만한 좋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받아들일 만한 좋은 근거는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러나 문장의 단언할 수 없음은 그 문장이 참인 것과 양립 가능하다. 직설 조건문을 조건적 확률이 높다는 주장 자체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¹¹⁾

이에 대해 필자는, 어떤 문장이 참이지만 단언할 수 없는 정도가 높을 때는 그 반대 문장(opposite)도 역시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반대 문장을 말하는(단언하는) 것도 꺼리는데 반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직설 조건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

11) Frank Jackson, "On Assertion and Indicative Conditionals", *Philosophical Review*, 88 (1979), pp.565-589, reprinted in *Conditionals*, ed. by Frank Jackson,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pp.111-135를 볼 것.

적함으로써 답변하고자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빈이랑 혜교와 함께 있느냐고 물었고 내가 빈이랑 함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자. 그런데 사실 나는 빈과 혜교 모두와 함께 있었다. 이 경우 나의 대답은 참이지만 질문을 한 이로 하여금 내가 빈이와만 함께 있었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단언할 수 없는(unassertable) 대답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내 대답의 반대 문장 또한 단언할 수 없으며 게다가 더 나쁜 대답으로 보인다. 대개 참이지만 단언할 수 없는 문장을 말할 때 그가 말한 것의 반대 문장 역시 단언할 수 없는 문장이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P와 '¬P' 둘 다 단언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말하기를 꺼린다.

직설 조건문과 관련하여서는 상황이 다르다. 누군가가 반 맥기의 예에서 묘사된 상황에서 “만약 레이건이 이기지 않는다면, 앤더슨이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거짓인 것으로 보일 때 그 반대 문장 역시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그 반대 문장은 단언할 수 있으며 심지어 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의 직관은 위의 상황과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 반대 문장을 말하기(단언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필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직설 조건문과 관계한 상황을, 문장이 외관상 거짓으로 보일 경우 그것은 참이지만 단언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고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¹²⁾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필자의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위의 조건문을 부인한 후, 참으로 보이는 그 반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은 바로 “만약 레이건이 이기지 않는다면, 앤더슨도 이기지 않을 것이다” 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조건문들을 실질 조건문으로 이해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실질 조건문 'P → Q'와 'P → ¬

12) Keith DeRose, “Contextualism: An Explanation and Defense”, *The Blackwell Guide to Epistemology*, ed. by John Greco and Ernest Sosa, Blackwell, 1999, pp.187-205와 그레코가 쓴 이 책의 서문, 특히 pp.14-16를 볼 것.

Q'는 서로 모순이 아니며 서로의 반대 문장도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필자의 해석은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의 조건문이 말하는 것은 $\Pr(Q/P)$ 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 후자의 조건문이 말하는 것은 $\Pr(\neg Q/P)$ 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체로) $\Pr(Q/P)$ 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equivalent)이다. 대개 (항상은 아니지만) $\Pr(Q/P)$ 이 낮으면 $\Pr(\neg Q/P)$ 이 높으며 따라서 「만약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 「만약 P이면, $\neg Q$ 이다」는 참이다. 이렇게 필자의 해석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직설 조건문 「만약 P이면, Q이다」가 거짓으로 보이고 그것의 반대 문장이 참으로 보일 때 우리가 참인 그 반대 문장으로 「만약 P이면, $\neg Q$ 이다」를 단언하는 현상을 설명해 준다. 이것이 또한 필자의 해석을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최현배, “전건 긍정 법칙 (Modus Ponens)의 반례”, 제 13회 한국철학자 연합대회 발표, 2000
- Keith DeRose, “Contextualism: An Explanation and Defense”, *The Blackwell Guide to Epistemology*, ed. by John Greco and Ernest Sosa, Blackwell, 1999, pp.187-205
- Frank Jackson, “On Assertion and Indicative Conditionals”, *Philosophical Review*, 88 (1979), pp.565-589, reprinted in *Conditionals*, ed. by Frank Jackson,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pp.111-135
- Bernard D. Katz, “On a Supposed Counterexample to Modus Ponens”, *Journal of Philosophy*, 96(8), 1999, pp.404-415
- David Lewis, “Probabilities of Conditionals and Conditional Probabilities”, *Philosophical Review*, 85, 1976, pp.297-315, reprinted in *Conditionals*, ed. by Frank Jackson, 1991, Oxford University Press, pp.76-101
- Vann McGee, “A Counterexample to Modus Ponens”, *Journal of Philosophy*, 82, 1985, pp.462-471
- Walter Sinnott-Armstrong, James Moor, Robert Fogelin, “A Defense of Modus Ponens”, *Journal of Philosophy*, 83, 1986, pp.296-300